



DGISTORY CONTENTS

D'light?	D'light 홍보대사 소개 04	Support our dream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18
Call out about DGIST	무학과 단일학부 소개 06	Our Activity, DGIST Activity	FGLP&UGRP 소개 22
Life in DGIST	디지스트 학생의 여가생활 10	Listen to DGIST	17학번 합격생 인터뷰 26
Around DGIST	학교 주변 여행지 14	DGISecreT	공부법 소개 32
Be active in DGIST	인턴프로그램 소개 16	Interview know-how	면접 노하우 34
		Quiz	십자말풀이 38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설레던 첫 '시작'을 맞이했던 17학번의 새내기들이
자랑스러운 디지인으로서는 18학번 새내기 후배들을 기다리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DGIST처럼
환한 마음으로 가득한 후배들을 기다리겠습니다.

DGIST 홍보대사 D'LIGHT

D'LIGHT?

D'light [dr'laɪt]

- [명사] 1. DGIST를 밝히는 빛, 기쁨이라는 뜻
2. DGIST 학생 홍보대사
작성자: 김세희, 신민혜 대사

Activities of D'light!



캠퍼스 투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실리언스 홀 소개, 학술정보관 등 재학생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캠퍼스를 투어합니다.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면서 실제 수업 중인 모습도 볼 수 있고, 재학생들을 통해 더 자세하고 생활적인 모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입학설명회 지원

입학설명회에서 DGIST의 입시 자료와 홍보자료를 나누어주고, 입학사정관들과 입학팀을 도와 학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DGIST만의 장점과 생활적인 지원 등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학교행사도우미
(면접진행, 입학식, 학위수여식 등)

DGIST 수시/정시면접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을 인솔해주시고, 입학식, 학위수여식 등의 학교행사에 참여해 진행보조와 인쇄물 배부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NS활동

홍보대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카드뉴스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게시하며 다가가기 쉽고, 친근한 홍보대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교방문

모교방문은 DGIST 재학생이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입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 주는 활동입니다. 굳이 홍보대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DGIST 구성원이 본인이 원한다면 참가할 수 있는데요. 선배가 직접 전해주는 학교 이야기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더 느껴진다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관견학

홍보대사로서 하는 여러 활동 중에는 DGIST 내에 위치한 여러 기관 견학이 있습니다. 기관 견학을 통해 학교에 대해 알고, 애교심을 더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CALL OUT ABOUT DGiST

무학과 단일학부에 대한 생생한 언급!

디지스트의 무학과 단일학부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진로변경을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든든한 다리같은 존재입니다.

SURVEY FOR UNDERGRADUATE

작성자_김동현, 차영길 대사

이런 학생들에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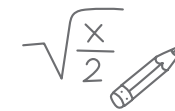
무학과 단일학부는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좋아요. 전공을 바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 변경도 쉬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자신에게 꼭 맞는 전공을 찾을 수도 있어요.

무학과 단일학부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최고 5점 만점)



3.33점

무학과 단일학부 만족도는?
3.33점. 만족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3.43점

무학과 단일학부는 여러 과학의 꼭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 같다?! 긍정적 반응이 3.43점!



4.23점

여러 과학을 많이 배우게 되는 무학과 단일학부! 배우는 범위가 타 대학보다 많다고 생각하나요? YES! 4.23점. 많은 학생들이 범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9점

무학과 단일학부는 다른 학교에 비해 진로변경이 수월하다? 3.9점으로 YES! 대학교에 와서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경험으로 진로가 바뀐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75명 중 45명 이니 되었어요~



3.77점

진로변경에 있어 융복합 교육이 충분한 도움이 되나요? YES! 3.77점. 융복합 교육을 통해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진로변경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89점

커리큘럼은 만족하나요? 2.89점으로, 아직 신설학과다 보니 안정화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커리큘럼의 조정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점

디지스트에서 처음 시작된 무학과 단일학부? 도전적이다?! 4.2점으로 YES! 무학과 단일학부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하세요~

DGiST



INTERVIEW

무학과 단일학부로 도전하세요!



기초학부 3학년
김도연 학생

- Q. 인터뷰에 앞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학부 3학년 김도연입니다. 총학생회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총장 장학생입니다.
- Q. 대학을 입학하신 후에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확한 전공을 정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스트에 입학 한 후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면서, 과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서 '시각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연구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 Q. 무학과 단일학부를 추천하시나요, 혹은 비 추천하시나요? 1~10점 사이의 점수로 말해주신다면?**
한 9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점에서 1점을 깎은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신 분들에게는 무학과 단일학부 외의 기존 학과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융복합적인 내용을 배운다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Q. 본인이 생각하시는 무학과 단일학부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공'을 통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타인에게 알려주기 쉬운데 단일학과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과목을 접해볼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와 협업할 때 우리는 이미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 Q. 무학과 단일학부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과학계에 더 몸담고 있으신 분들일수록 무학과 단일학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긍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융복합이라는 것을 받아드리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외부시선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걱정한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Q. 마지막으로 무학과 단일학부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라. 이것은 무모함과 다르다.' 위험을 감수하시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기초학부 3학년
황상우 학생

- Q. 인터뷰에 앞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학부 3학년 황상우입니다.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창업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고 창업팀 와이핏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 Q. 대학을 입학하신 후에 장래희망이나,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는 치과 의사를 희망하다가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컴퓨터가 좋아져서 컴퓨터 과학 연구 혹은 창업 쪽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Q. 무학과 단일학부를 추천하시나요, 혹은 비 추천하시나요? 1~10점 사이의 점수로 말해주신다면?**
저는 7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한 무학과 단일학부는 과학의 전분야를 알게나마 배워야 하는 부담감도 있어 학부생 개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적응한 뒤에는 더 넓고,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저에게 잘 맞기 때문에 가치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Q. 본인이 생각하시는 무학과 단일학부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점으로는 학부생이 200명인데 과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간의 교류가 적고 개개인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학과 단일학부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로변경이 자유롭게 때문에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분야에서도 협업하는 경우 더 큰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 Q. 무학과 단일학부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주변 부모님, 친구들은 디지스트의 무학과제도가 너무 선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많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학과 단일학부라는 제도는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발전할 수 있고, 과에 얽매인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학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무학과 단일학부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학과 단일학부란 굵지 않은 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LIFE IN DGIST

디지스트 학생의 여가생활!

DGIST의 학생들은 여가시간에 무슨 활동을 할까?
 많은 활동들이 있겠지만 단연 동아리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5월은 공연동아리의 활동이 두드러진 달!
 DGIST의 공연 동아리 중 춤 동아리 BGM과
 보컬, 힙합 공연동아리 보이스피싱의 단독공연을 소개한다.

DANCE GROUP

춤으로 디지스트를 사로잡다, BGM

댄스와 연기를 합한 댄스컬 형식의 무대를 선보인 BGM의 단독공연은 첫 단독공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와 실력을 보여줬다. 이번 공연을 보지 못한 학생들이 동영상이라도 올려달라는 성원까지 얻게 된 BGM의 부장 김동현 학생과 함께 동아리의 활동, 그리고 이번 단독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작성자: 김정균, 김예린 대사



STREET DANCE

BGM이 궁금해, 간단히 소개해준다면?

BGM Fanatics로, Breakin Groove Music Fanatix의 줄임말이야. DGIST 대표 스트릿댄스 동아리로 현재 얼반, 힙합, 걸스 힙합, 비보잉 위주로 활동 중이야.

스트릿댄스라는 장르가 약간 생소한데?

실제 춤을 보시면 '아 이거였어?' 할거야^^ 유튜브같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춤들이 거의 스트릿댄스일 정도거든.

그렇구나. ㅎㅎ BGM 동아리 장점도 알려줘.

공연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연습할 때도 있어. 힘들지만 잠깐 쉬면서 놀기도 하고, 야식도 먹으면서 서로 많이 친해질 수 있어. 그리고 뿌듯함과 만족감은 공연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지!

이번 단독공연이 대단했다고 소문이 났더라!

약간의 연기와 춤을 통해 스토리를 이끄는 댄스컬을 선보였어. 남녀 주인공 간의 사랑과 다툼을 춤과 연기로 표현했지. 혹시 못 봤다면 BGM Fanatix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어!



STAGE



VOCAL GROUP

천상의 목소리들이 만드는 화음, 보이스피싱!

단연 돋보였던 DGIST의 보이스피싱의 단독공연! 학기 초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솔로무대, 듀엣무대, 유닛무대가 어우러진 보이스피싱의 공연에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보이스피싱의 부장 박준국 학생과 함께 동아리의 활동, 그리고 이번 단독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보이스피싱이 궁금해!

보이스피싱은 DGIST 중앙 보컬, 힙합 공연 동아리야. 보컬, 힙합, 레코딩으로 나뉘어 학기마다 최소 2회 이상 다양한 공연과 녹음활동을 해~

보이스피싱만의 장점은 뭐야?

서로 좋아하는 것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노래하고, 화음을 맞추며 깊은 유대관계를 쌓고 있어.

5월 공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해~

5월이면 항상 열렸던 보이스피싱의 3번째 단독 공연이었어. 무려 18곡을 선보였어. 신입부원에겐 경험의 장이고, 기존 부원에게는 연습의 결과를 뽐낼 수 있는 공연이었어~ 공연에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의 응원이 우리의 다음 무대를 준비하게 하는 원동력이야!

이 외에도 많은 DGIST 학생들이 공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공연동아리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재능을 뽐내는 학생들은 더더욱 의미 있는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을 이용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연을 준비하고 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여가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을 해 보는 게 어떨까.

VOCAL & HIPHOP

DGIST NIGHT

음악과 함께하는 DGIST의 밤, 비슬문화행사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있다면, DGIST에는 '비슬문화행사'가 있다. 교향곡에서 앙상블, 피아노와 무성영화까지 서울의 유명 공연들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 DGIST 학생들의 문화를 책임지는 비슬문화행사를 취재해 보았다.

PIANO ENSEMBLE

비슬문화행사는 DGIST 학생들의 균형적인 감성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 매년 학기 중 6회 개최되고 있다. 특히 5월과 11월에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 행사를 개방하고 있다. 바야흐로 융복합 인재를 기르려는 DGIST의 목표와, 4C 정신 중 하나인 배려(Care)를 잘 나타내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5월 17일 수요일에는 제39회 비슬문화행사 '여행, 음악을 만나다'가 개최되었다. 이번 비슬문화행사에서는 알랭 드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름다운 선율에 풀어냈다. 유럽여행 사진과 그에 맞는 음악은, 우리가 왜 여행을 떠나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보여줬다. 공연을 관람한 강민지(16학번) 양은 "클래식 음악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다. 연주자와 소통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일석이조인 것 같다."며 공연으로 인해 기쁜 마음을 표현하였다.

물론 호불호가 갈리는 반응도 있었다. 신연재(15학번) 양은 "평소에 비슬문화행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이해하기 힘든 음악들이 많았다. 내가 책을 안 읽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라며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모든 비슬문화행사가 클래식음악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지난 행사들에서는 소설가 황순원 선생님께 서 강연을 해주시기도 하였고, 락 밴드치즈스테레오가 신나는 공연을 펼쳤으며, 무성영화 찰리채플린의 시타라이트를 피아노 연주와 조화를 이루며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 또한 모든 행사는 해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함께 즐기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듯, DGIST는 학생들의 문화생활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교양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은가?

AROUND DGIST

일상에서 벗어난 우리의 순간들 대구수목원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지루함,
그 지루함에서 벗어나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DGIST 근교의 스팟들을 소개한다.

— 작성자_유지영, 정원균 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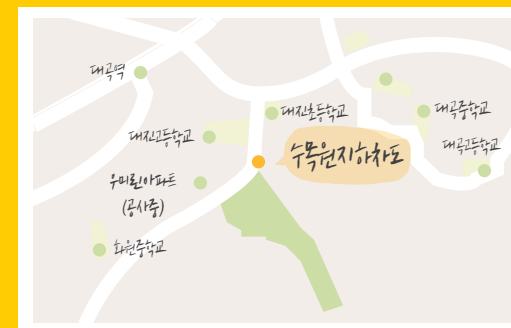


대구수목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에서 가려면 대곡역으로 가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대곡역으로 이동한 다음 택시를 타거나(택시비 약 3500원) 도보로(약 20분 거리) 갈 수 있다. 대구수목원에는 21개의 주제로 꾸며진 전문 수목원이 있다. 보유 식물은 초본류 1,300종 27만 포기, 목본류 450종 8만 그루 등 총 1,750종 35만 본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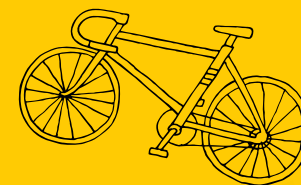
오시는길

셔틀버스 이용 - 대곡역 이용
(택시비 약 3500원)
(도보로 약 20분 거리)



AROUND
DGIST

이번 5월 1일 처음 개장한 열대과일원에 도착하여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면 익숙하게 들어본 파인애플, 자몽,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과 하귤, 망고스틴 등과 같은 흔히 보기 힘든 과실도 전시 되어있다. 열매 외에도 함께 열리는 꽃도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 우리는 파인애플이 야자수처럼 높은 나무위에서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초같이 생긴 화초위에 파인애플이 올라 타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수목원에 있는 화초와 열대과일들을 다 보고 난 후에는 주변 나무들이 울창한 곳에 돛자리를 깔고 간식을 먹으며 소풍분위기를 내보았다. 바깥 학교 일상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 들었다.

BE ACTIVE IN DGIST

DGIST 대학원 하계
인턴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수정 학생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노수정입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 2번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4주 일하고 68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준다는 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학부수업에서 배운 tRNA가 수명 등의 노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남홍길 교수님 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름방학에 뉴바이올로지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겨울방학 때도 인턴을 진행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했나요?

여름 방학은 4주, 겨울 방학은 5주로 진행되어 여름 방학 때는 2주, 2주 나누어 2주는 동물랩, 2주는 식물랩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1주 동안은 남홍길 교수님 랩에서 일하시는 대학원생분,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 나머지 4주는 제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그 박사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mouse lab에서는 유전자를 정제하고 형질주입하여 세포주기와 세포막전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해볼 수 있었고, C.elegans lab에서는 icial RNA를 이해하고 물질대사에 주는 영향과 생존율을 연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Q.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은?

이런 연구들에 도움이 되는 실험을 해보니 대학교에서 하는 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직접 대학원생에게 대학원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가까이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남홍길 교수님은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인턴하는 내내 새로운 질문은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제 생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하던 관점에 눈을 뜨게 해준 인턴프로그램 추천합니다!

DGIST 대학원에서는 학부생에게 다양한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 융복합연구 기회를 주기 위해 『DGIST 대학원 하계 인턴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인턴프로그램의 매력에 함께 빠져 보시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신연재 학생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학번 신연재입니다. 저는 2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E3)에서 2번의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1학년 여름방학 때 FGLP를 다녀오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인턴을 지원을 했었으나,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 제 자기소개서가 많이 미흡하더군요(웃음).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래서 1학년 겨울은 집에서 휴식기를 가지고, 2학년 여름 때 처음으로 인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했나요?

2학년 여름방학 때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의 최지환 교수님 밑에서 matlab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연구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방학인 2학년 겨울방학 때는 같은 E3 건물에서 BMI(Brain-Machine Interface) lab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부의 자랑인 융복합 교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학교의 대학생들보다 우리 학부만의 강점을, 나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 랩에서 실제로 BMI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등을 배웠고, 논문을 읽는 방법과 같은 추후 연구를 하게 될 때 필요한 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은?

인턴을 통해 학문적인 것도 배웠지만 그보다 대학원생의 생활이나 연구환경, 연구방법 등에서 배운 것이 제일 컸고, 열정페이도 아닌 돈을 받으면서 인턴생활을 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인턴프로그램을 신청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저에게 졸업 후 진로를 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법한 많은 지식들이 지금 3학년 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지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신이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한번쯤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SUPPORT OUR DREAM

여러분의 창업을 돕습니다!
기술창업교육센터

기술창업교육센터는 기업가정신 확산,
창업챔피언 육성, 기술기반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창업 전담기구 역할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성자_김서영, 김태연 대사

창업교과목운영

정규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석/박사	전체공통	기술경영(3)
학사	전체공통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책임(3)
		리더십 I, II (1)
		글로벌 리더십 I, II (1)
	창업/ 취업 트랙	UGRP*빌게이츠 코스(3)
		재무관리(3)
		조직관리(3)

비정규 교과목



프로그래밍 교육



청년기업가
런치토크



JETS-Track :
창업방법론(황윤경)



린 스타트업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멘토단 특강,
고객인터뷰, 개별멘토링

모의창업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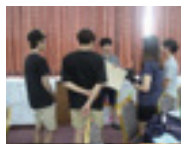
기술기반 모의창업프로그램 '용자(勇者) 프로그램' 추진



용자 모집



용자교육



용자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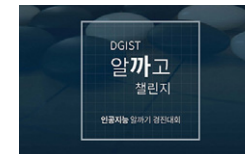
용자갤러리
(전시회)



모의창업경진대회

관련 대회 및 인턴십

인공지능 알까기 경진대회(DGIST 알까고 챌린지)



목 적	경쟁을 통한 프로그래밍 실력 향상과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아이템 발굴
참석자	DGIST, KAIST, 경북대를 포함한 10여개 대학 총 12개팀(29명)

바이오 인턴십 운용

목 적	바이오, 헬스분야의 유명 스타트업 체험을 통한 창업노하우 획득
기 업	워싱턴 KIC 바이오-엑셀러레이터 선정 3사

(주)네이처포	(주)누리바이오	(주)테라코너스
한방 약재추출물을 활용한 쿨링 테크놀로지 기반의 미용 및 의료제품	miRNA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전기생리학을 활용한 개인용 유방암 검진기

학부생 창업현황

창업기업명	대표자	소속	내용
투플	이인	기초학부	일관된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SNS 개발
WE FACTORY	우성용	로봇공학과	생명공학용 세포 성장발육 자동화 시스템 및 신호측정시스템
주식회사 아텐	엄성민	정보통신 융합학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연구개발
주식회사 랩바이랩	최혁진	기초학부	대학원 연구실 정보를 원하는 대학원 지망생, 석박사생, 교수님을 위한 '연구실 정보분석 및 맞춤형 연구실 제공 웹서비스' 지원
랜턴	양준모	기초학부	과외 중개 서비스
주식회사 바로	김산하	기초학부	아마추어 밴드 연주자들을 위한 합주 영상 제작 및 연주서비스 제공

FOUNDING PROGRAM

연구실 메타 정보를 얻다 주식회사 랩바이랩

이공계 연구실 정보 검색을 아이템으로 '랩바이랩'을 창업한 DGIST 학부생들.
뒷줄 왼쪽에서부터 최혁진 대표, 김영현, 김종수, 앞줄 왼쪽에서부터 김혜진, 김산하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 간단한 소개한다면?

랩바이랩은 '한국 연구실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이공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5개 과학기술원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00여 개 연구실의 메타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실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하고, 웹에서는 얻을 수 없는 리얼한 연구실 정보를 추가해나가고 있다.

Q. 학부생이라는 신분으로 창업을 시작
하기에 걸림돌도 많았을 텐데. 창업
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인 계기가 있는가?

DGIST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화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DGIST 재학 중 우연히 한 엔젤투자자께서 해주시는 창업 강연을 듣게 되었다. 기업이 기술로 자기 철학을 실현해 세상에 기여하는 모습에 반했고, 이때부터 스타트업에 빠져들었다. 스타트업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 DGIST 1기 학부생들의 공통된 니즈였던 '우리끼리 온라인에서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GIST 온라인 커뮤니티 DGFUL(www.dgful.com)을 만들었다. 웹사이트 제작에 관해 아무 지식도 없었지만, 주위 선배, 서적, 인터넷을 찾아가며 2주 동안 밤새가며 완성해냈다. DGFUL을 개발할 때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경험을 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일했는데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을 직접 겪고 나니 소름이 끼쳤고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즐거웠고, 이를 계기로 창업에 본격적으로도 도전해보게 되었다.

Q. 기업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과 인터뷰해보니,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은 경우는 많은데 정보를 얻을 채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반대로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는 홍보할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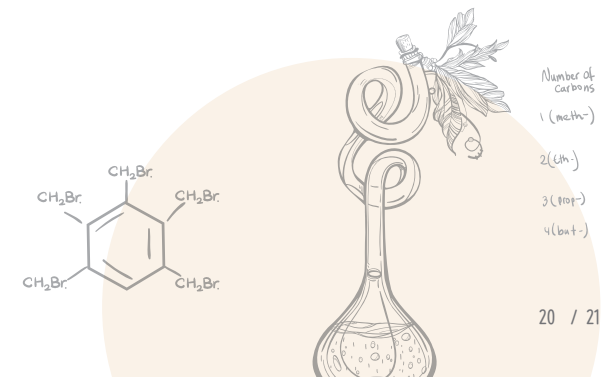
앞으로 국내연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아가 세계 모든 연구실의 정보를 제공해서
이공계 인재들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하도록 돕고 싶다.

Q. DGIST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나?

기술창업지원센터에서 여름방학마다 지원하는 '용자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템 구상과 개발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셨고, 이 비용으로 많은 학생, 교수님, 연구원 분들과 인터뷰를 하며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용자캠프에서 진행되는 많은 강연과 여러 캠프 활동 덕분에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Q. 대학 진학 후 창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니 너무 멋지다. 사실 꿈이란 건 그 자체로 멋진 것이기에 꿈을 가진 이들을 응원한다. 창업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동반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는 두려워하되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말길 바란다.



OUR ACTIVITY DGIST ACTIVITY

DGIST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고?

FGLP & UGRP

작성자_전주영, 김윤경, 김대한 이사

Tag 1. FGLP

FGLP는 디지스트 모든 1, 2학년 학생들에게 여름학기 중 UC Berkeley, Johns Hopkins, Stanford에서 수업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스트만의 독특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는 디지스트가 지향하는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실현하고, 세계 과학 기술계의 리더가 될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FGLP를 다녀온 두 선배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1st Q&A. 김희영

FGLP 과정 중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나요?

저는 UC Berkeley에서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Design, Introduction to Acting을 수강했습니다.

FGLP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상적인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들었던 두 수업은 모두 힘들기로 유명한 수업이었어요. 특히 연극 수업의 모든 과제가 파트너로 이루어져서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식사 후 다시 연습해서 따로 시간이 나지 않았지만, 틈틈이 친구들과 대화하며 더욱 친해질 기회가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보러 간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랑'이라는 평등한 단어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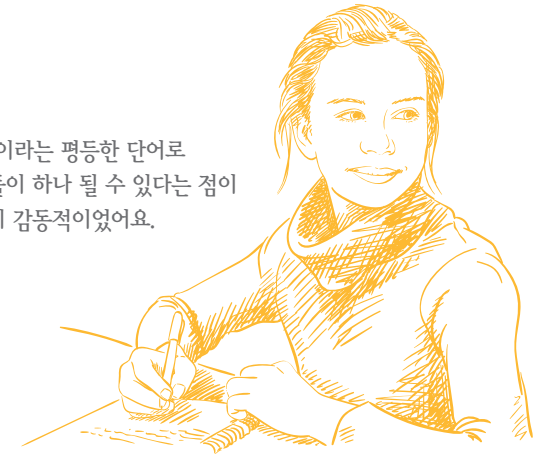
FGLP 과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FGLP를 추천한다면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FGLP를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일단 학교 분위기가 DGIST와 굉장히 달라요. 쉬는 시간에 잔디밭에 누워서 독서를 하거나 친구 집 옥상에서 버클리 전경을 내려 다보며 쉬는 등 모두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저는 평소 개성이 강한 편인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개방적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간간히 연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FGLP에 갈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세요! 작게는 평소 입지 못한 파격적인 옷을 입는 것부터 크게는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는 것까지요. 저는 미국용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고, 거의 다 이루고 왔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보던 친구들과 늘 하던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알아요? 평생 베프가 생길지!

“
'사랑'이라는 평등한 단어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



2nd Q&A. 서준표

FGLP 과정 중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나요?

저는 UC Berkeley에서 the beauty and joy of computing, the person in big data, stress and coping을 수강했습니다.

FGLP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상적인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저의 FGLP 목표가 '방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자'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잠깐의 시간에도 캠퍼스 투어를 하고, 주말에는 LA에 가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타모니카 해변 등에 가기도 했어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스카이다이빙! 인생에서 다신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FGLP 과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FGLP를 추천한다면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은 아무래도 사방에서 영어가 들리다 보니까 리스닝이 트여요.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수업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FGLP를 추천합니다! 계절학기인 만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보이고 현지인들을 통해 그 학교의 분위기나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으로 FGLP에 갈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FGLP를 위해서라도 어학점수를 꼭 뺐으면 좋겠어요. FGLP를 통해서도 성적에 대한 압박관념 없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데 유학 등을 통해서 가게 되면 성적으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고 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FGLP를 꼭 가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FGLP를 가면 꼭 많이 돌아다니세요!! 많은 경험 추천합니다!

UGRP는 학생 4명이 한 그룹을 만들어 공동 참여하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기초과학, 공학, 인문사회 간의 융합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통합적 시야를 키우고, 협력, 역할분담, 성과배분을 배워가며 커뮤니티 리더십을 길러가는 융복합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선배님이 말하는 UGRP는 어떤 것일까요?

1st Q&A. 하충환

Q. 이번에 진행했던 UGRP 연구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빌게이트 코스에서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설계 및 정착 솔루션 개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Q. 주제 선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연구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는 Bottom-up 방식으로, 팀원끼리 합의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교수님께 지도를 요청했어요. 팀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중, 귀농, 귀촌과 관련된 뉴스에 눈이 갔어요. 베이비 붐 세대였던 50-60대 분들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때이고 대부분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40퍼센트 정도의 분들이 귀농, 귀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귀농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Q. UGRP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성적 등의 요인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

교는 모든 학생들이 성적 등에 관계없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또 UGRP 자체에 참여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좋다고 생각해요.

Q. UGRP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Bottom-up의 경우 교수님께서 따로 지시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어요. 교수님께서 저희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도 저희가 어떻게 실패하고 배우는지 지켜보기만 하세요. 따라서 다른 길로 많이 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 하나하나가 나중에 귀한 것이 되었고, 실패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Q. UGRP 과정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식용 곤충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 팀원이 식용 곤충으로 빵과 사과 전병을 만들어 온 적이 있었어요. 만들 어온 학생은 벌레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맛이 안 느껴질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빵을 드셨는데, 뭔가 씹히셨는지 빵을 뱉으셨어요. 그 때 벌레가 덩어리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제야 팀원은 사실 벌레도 몇 마리 넣었다고 말하더라고요.

Q. 마지막으로 UGRP를 하게 될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자신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주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연구 중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포인트를 연구 분야가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팀 내에서 내가 나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연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2nd Q&A. 유창재

Q. 이번에 진행했던 UGRP 연구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프랑스 코스에서 유성운 교수님과 함께 '신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Q. 주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선정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연구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는 Top-down 방식으로 DGIST Wiki에 올라온 2017 UGRP 주제를 보고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전에 제안하신 주제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보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Q. 자신이 생각하기에 UGRP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가장 큰 장점은 학부생 시절에 1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이해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직접 실험을 진행하고 소논문이나 포스터 발표를 하는 등 일련의 연구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대부분 자신의 관심 분야로 UGRP를 진행하니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거나 한 발 더 다가갈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교수님에 따라서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속삭속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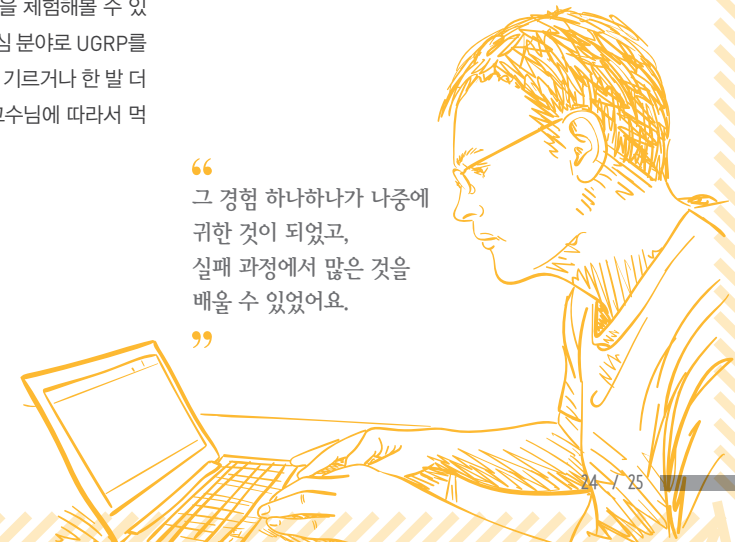
Q. UGRP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구에 즐겁게 임하는 것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자신도 힘들고 팀원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평소 관심 가지던 주제에 대해 실험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UGRP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UGRP에 대해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UGRP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봐요. 누구에게는 매주 매주 가야 하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죠. 3학년 1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즐겁게 활용해보았으면 좋겠어요.

“ 그 경험 하나하나가 나중에 귀한 것이 되었고, 실패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



MIRE



박규얼 (미래브레인 일반전형)

비교과활동 실적을 자소서에서 잘 녹여냈고, 그룹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잘 해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 저처럼 비교과 실적을 강조하고 싶은 친구들은 활동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그룹토의에 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송준수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일찍 꿈을 정해 일관된 학생기록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면접 때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찾아 어필하고, 면접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자신감 있게 보여주면 좋을 것입니다.



박창호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면접 때는 발표, 토론, 토의 경험이 풍부해 그룹토의에서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했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오직 디지스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장점으로 승화하였습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룹 토의주제가 생소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다양한 주제를 정해 의견을 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최지유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고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 및 대회에 참여하여 말하기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렇기에 면접 및 조별 토의 때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답변을 잘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디지스트의 인재상과 교육제도 등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이를 통해 입학의지를 구체적으로 어필하면 좋을 것입니다.



송수정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발표대회에 자주 나간 경험 덕분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면접 때에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 질문에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또한 인재상을 잘 숙지하여 답변에 활용했는데,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룹 토의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면접장에서 시간관리를 하기 어려우니 미리 친구들과 토의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래면접과 브레인 면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래면접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학생이 충분히 DGIST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학생이 보게 되는 면접으로, 그룹토의+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브레인면접은 학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면접으로, 그룹토의+학업역량평가+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BRAIN



정지수 (미래브레인 일반전형)

고등학교 때부터 뇌과학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한 목표를 바라보며 관심분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제풀이를 준비할 때 면접 기출문제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기본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정세진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호기심이 많아 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했고, 각각의 활동에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명확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활동과 내신을 둘 다 챙겨야 할 텐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늘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선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디지스트의 인재상 중 하나인 배려를 어필하였는데, 이때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적 측면에서 배운 점들을 잘 설명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학업역량을 다지되, 합격 후 학교 생활을 위해 심화된 과학지식과 영어를 공부해 둘 것을 추천합니다.



이동민 (미래브레인 일반전형)

저의 강점인 많은 독서량을 융복합적 인재의 면모와 연결시켜 자소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수학 과학 지식을 탄탄히 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면서 면접을 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방경남 (미래브레인 일반전형)

강한 진학의지와 디지스트의 커리큘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고, 이를 면접에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그룹토의에서 경쟁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디지스트의 공개된 실적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진학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경미 (미래브레인 추천전형)

저는 학업역량평가에서 수학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해냈고, 과학 문제풀이는 미흡한 점을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차근차근 잘 고쳐 나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스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브레인면접의 과학 문제에 1, 2과목의 개념이 모두 등장할 수 있으므로 과학 2 과목의 개념을 잘 숙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디지스트의 두 가지 면접 유형에 따라 나온 17학번 새내기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미래의 DGIST 학생을 꿈꾸는 예비 디지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DGIST에서 만나요!

SPECIAL
SELECTION

2017년도 입시부터 신설된 특기자전형!

새로 생긴 전형이기 때문에 미래브레인 일반전형 및 추천전형에 비해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특기를 가진 예비 DGIST생들을 위해 특기자전형 합격생 윤형근, 주인성, 함어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Interview — 윤형근



Q. 디지스트 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었지만,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전문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분야와 특기 분야를 함께 공부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하거나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Q. 디지스트에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셨다면, 남들에게 인정 받을만한 특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만의 특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보 분야와 코딩 분야에 자신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하루가 지나면 정보가 리셋되는 harooo라는 SNS를 직접 개발하여 네이버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에 참여하여 동상을 수상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위키백과를 제작하였습니다.

Q. 디지스트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특기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스트의 융복합 교육과 어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는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기자 면접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기 분야에 대하여 말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특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준비하면 디지스트에 와서도 학업과 생활을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Interview — 주인성



Q. 디지스트에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의 특기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수상경력을 제대로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특기자들이 원하는 특기 분야는 생활 기록부에 명시할 수 있는 교내 대회로 명시할 수가 없고 교외 대회로 자신의 특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Q. 디지스트에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셨다면, 남들에게 인정 받을만한 특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만의 특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봇 분야에 특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15cm정도 되는 로봇물고기를 개발하여 제 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로봇 분야로 전북대학교 창의공학동아리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디지스트를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꼭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생활이 힘들 것을 알지만 힘내시고, 내년에 꼭 디지스트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Interview — 함어진



Q. 디지스트에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디지스트에 입학하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실험과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까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처리를 주로 연구했는데, 디지스트가 전국 2위 성능의 슈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학교에 입학한다면 제가 연구하고 싶은 contextual adaptation 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하였습니다.

Q. 디지스트에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셨다면, 남들에게 인정 받을만한 특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만의 특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한된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의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Q. 디지스트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디지스트와 같은 과거원은 굉장히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기자로 지원하여 디지스트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과는 다르게 더 좁지만 더 전문화된 길을 걸어온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특기 경험 이외에 더 넓은, 방대한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GISECRET

예비 선배들 추천, 공부 비법을 공개합니다!

작성자_장수진 대사

DGISTory 독자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거나 공부를 할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DGIST에 재학 중인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DGIST 재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DGIST 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Q. 자신만의 공부방법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세희(17학번) 저는 수업내용을 저만의 말로 바꾸어 노트 정리를 하며 복습했어요. 또, 노트 정리를 할 때는 여러 책과 수업내용을 모두 참고하여 한 권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필기해서 정리했어요.

수연(17학번) 저는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항상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 날 배운 내용은 그날 바로 복습하였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무작정 질문하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보고 질문을 했어요!

경현(16학번)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가르쳐주면서 내용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Q.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고, 그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시우(17학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밤을 새워가며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시간에 잠들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밤새서 공부하는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죠.

현중(17학번) 저는 멘토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배에게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문제집 추천도 받고 독서실도 추천받았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흔하디 흔한

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혁(17학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잘 때 더 공부했어요. 진짜 결과는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Q. 과학기술원인 DGIST에 입학에 도움되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혁(17학번) 저는 수학·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논문도 써보았어요. 그리고 그 논문으로 KSCY(한국청소년 논문대회)에도 참가했었어요.

현중(17학번) 저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IR(Individual Research)이에요. 이 활동은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찾아보며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보는 거였어요.

병찬(17학번) 연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참가한 발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덕분에 KSEF와 ISEF에도 참가하게 되었어요.

DGIST 일반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Q. 수학과 과학 이 외에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공부량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혁(17학번) 수학·과학 이외의 과목도 중요했기 때문에 수학·과학 이외의 과목에도 공부할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만 잘 활용해도 공부할 시간이 적어도 2~3시간은 늘어나더라고요.

현중(17학번) 저는 플래너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운 뒤, 하루의 계획을 매일 아침에 세웠어요. 계획을 짜다 보니 어떤 시간에는 어떤 과목의 공부가 잘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짜니까 계획을 더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Q. DGIST 면접에서 학교에서 배운 수학과 과학 내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현중(17학번) 면접은 자신 있는 과학 과목을 골라 면접을 보는데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누구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과목의 I, II를 모두 공부해야겠죠? 기초만 탄탄히 잡혀 있으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면접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우(17학번) 저도 현중이와 비슷한 생각이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흥미 있거나 잘하는 과목에 대해 I, II 내용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DGIST 과학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Q. 과학고 특성상 심화된 수학·과학을 배우는데 어떻게 공부했나요?

승원(17학번) 저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한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개념을 제대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문제를 풀다 보면 헛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AP 과목의 경우에는 영어 전문용어를 최대한 익숙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쓰고 읽으며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니깐 영어 단어가 익숙해졌고 자연스럽게 단어도 외워지더라고요!

수연(17학번) 저도 3학년 때 AP 과정을 이수했는데, AP의 경우는 일단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전문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규리(17학번) 저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식을 언제 어디서 써야 하는지 헛갈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을 직접 유도해보았어요. 공식을 유도해보니 그 공식이 언제, 어떻게, 왜 사용되는지 잘 이해되더라고요.

DGIST 재학생들의 공부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보세요!

INTERVIEW KNOW-HOW

“알려줄게, 디지스트 면접Tip!”

작성자 | 이기현, 김재우 대사

기초학부 면접

TIP

전형유형

수시

정시



면접유형

미래면접

브레인면접

특기자면접

미래면접

디지스트의 면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원전형과 관계없이(특기자 전형 예외) 미래, 브레인 면접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모든 면접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토의면접이 진행되며 미래 면접의 경우 개별면접이, 브레인 면접은 학업역량 평가와 개별면접이 함께 진행됩니다. (본 내용은 2017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세부 면접전형 변경이 있을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USSION INTERVIEW

토의면접은? DGIST만의 독특한 면접으로 모든 면접전형에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출 면접주제를 살펴보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면접팀의 토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이 아닌 토의인 만큼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 보다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의 과정에 있어 독보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나 많이 하지 않는 것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조 내에서 발언권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 졌을 때 좋은 토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DGIST에 지원한 친구들과 면접조를 만들어 기출면접 주제로 토의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제 면접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기출주제는 DGIST 입학처 홈페이지의 선행학습역량 평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의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토의면접은 최소 4명에서 6명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두 분, 입학사정관 한분께서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토의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토의 참여자들은 면접 전 10~20분간 자유롭게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동안 사회자를 정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면접이 시작된 후 토의 참여자들은 주어진 번호 순서대로 30초~1분간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주장한 뒤 자유토의가 시작됩니다. 약 15분간의 자유토의가 종료된 뒤 역번호 순서대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들을 피력하는 0초~1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며 토의 면접이 끝나게 됩니다.(위 세부 사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매년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다룰 수는 있겠지만, 토의의 시작과 끝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짧게나마 주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1에서 최대 6번까지 번호를 배정받고, 1~6 혹은 6~1 순서대로 의견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 때, 지원자께서 면접 전 기발한 의견을 제시 했었다면, 6인의 학생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며, 지원자보다 빠른 번호를 지니고 있는 학생이 가로채 의견을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즉, 면접 전에는 간단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시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토의 평가는 토의과정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의태도나 사고의 과정 등을 본인의 역량만큼 평가 받기 위해서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조에서 6명중 뽑는 인원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진행에 따라 6명 모두가 합격할 수도, 모두가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시작 전 조별 토의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의견을 제시하여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물론 자신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면접 때 더 좋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

MIRE DISCUSSION

미래면접

토의면접(15')

개별면접(8')

미래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기반으로 한 심층적인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서류속 내용들과 면접질문에 대한 응답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와 지원자의 학교에 대한 이해도, 진학의지 및 진학 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지원자가 DGIST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별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면접 질문 중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나, 잘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온다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 기입되어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속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답변을 모두 외우는 것은
좋은 면접준비 방법인가요?



엄밀히 말하자면 아니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면접 준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답변을 외우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지원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시선은 자동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며,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문장을 나열하게 됩니다. 즉, 지원자께서는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어떠한 답변을 하면 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핵심 키워드만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생기부, 자소서 이외의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배들의 DGIST 면접에서는 학생이 우리학교 인재상에 부합한지,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한지 등을 평가하는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DGIST인재상과 교육철학,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조사하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진학 후 DGIST에서 본인이 참여해보고 싶거나, 활용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여 진로계획을 말함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rain DISCUSSION

브레인면접

토의면접(15')

학업 역량평가+개별면접(15')

브레인면접은? 미래면접과 달리 토의면접과 학업역량평가, 개별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평가는 수학과 과학 한 과목의 문제를 면접관님 앞에서 풀게 되고 과학과목의 경우 원서 작성 시 물리, 화학, 생물 중 선택한 한 과목을 풀게 됩니다. 범위는 과학탐구 1, 2에서 출제됩니다. 2017년도 면접의 경우 수학과 과학 모두 A형, B형으로 각각 두 종류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면접 당일 문제를 보고 2문제 중 본인이 풀 문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30분간의 풀이시간을 갖고 난 후, 면접장에 들어가 15분 동안 문제풀이와 개인 인성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나요?



면접관님들은 여러분들의 학업역량과 더불어 발전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푼 데까지 혹은 막힌 곳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면접관님께 힌트를 받아가며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고 과정과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인데 학교에서
과학탐구1 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과학탐구2 공부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문제 출제 범위가 과학탐구 1, 2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2과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해가며 공부하는 것이 면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고, 영재고 학생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과학고의 경우 1, 2과목을 대학 원서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원서에 1, 2과목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 간혹, 옹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인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1, 2과목의 교과서나 참고서를 꼼꼼히 읽으며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면접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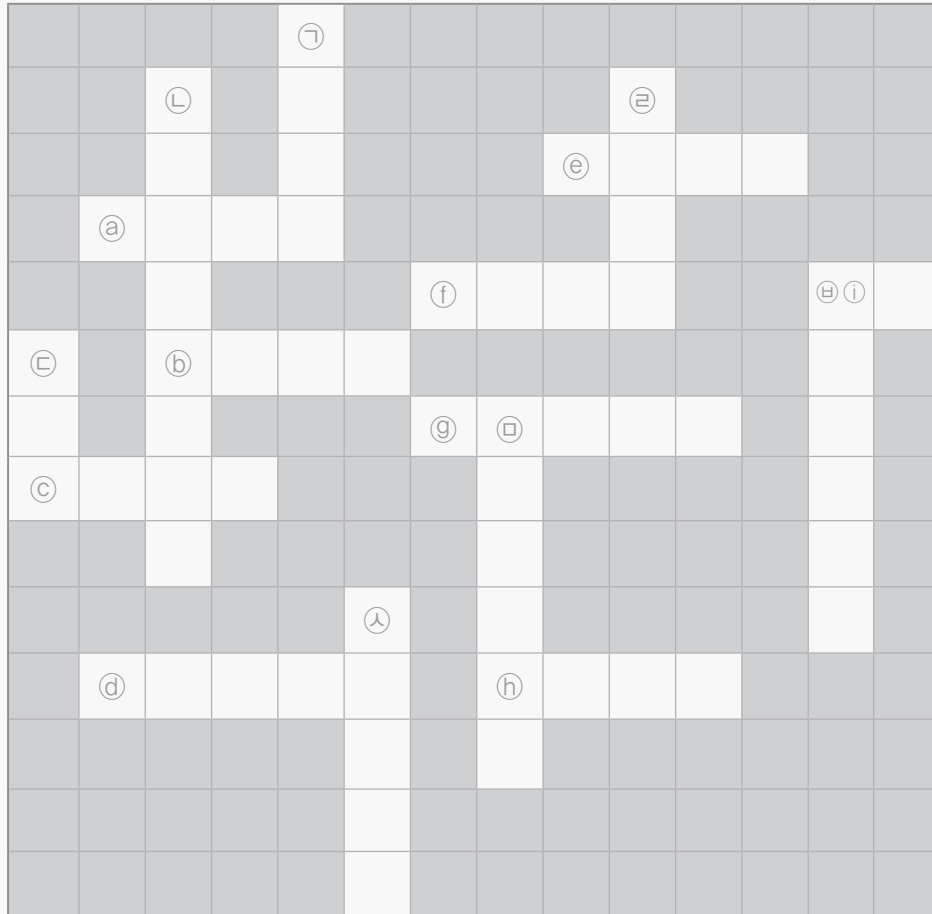


면접관님들께서 문제풀이와 시에 개인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미래 면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면접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면접 전에 꼭 해야 할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을 미리 준비하여 임팩트 있게 본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시면접

정시 선발은 수능성적으로 1차를 선발한 뒤 모든 1차 합격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면접으로 평가하며 pass/fail을 판가름합니다. 다시 pass를 받은 지원자들에 한하여 수능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을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면접(미래면접)' 부분과 '토의면접' 부분을 참고하시면 면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ORY2 십자말풀이 퀴즈



- ★ 모르는 문제는 2018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DGISTROY, 디지털 홈페이지 참고!
- ★ 보너스 퀴즈(보너스 퀴즈 정답도 함께 제출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디지털의 인재상 (가로퍼즐 ①)의 4가지 요소를 적으시오. (, , ,)
- ★ 위 퍼즐(+보너스 퀴즈)을 풀어서 "디지털 학생홍보대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퍼즐]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과학기술원.(영문 이름 그대로 발음)
- ㉡ 디지털 재학생들은 여름학기를 UC버클리, 존스홉킨스, 0000 중 한 곳에서 수강가능.
- ㉢ 디지털 모의 창업 경진대회의 명칭.
- ㉣ 디지털의 6개의 대학원을 의미. 디지털 입학전형에 유형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 ㉤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 교육계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대회(hint) 모집 요강 참고
- ㉥ 미국대학 여름학기 수강 기회 지원 프로그램(영문 약자 기재)
- ㉦ 융복합 인재 양성에 알맞은 교육 시스템. 000 00학부
- ㉧ 디지털 학부 전담 교수님들이 새로운 융복합 교육과정에 적합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 개발한 자체교재(e-book). hint) 융복합 0000
- ㉨ 디지털 인재상 4가지를 표현하는 단어. hint) 00인재

[세로 퍼즐]

- ㉠ 디지털스토리를 제작하고 있는 단체인 디지털 학생홍보대사의 명칭(한글로 기재)
- ㉡ 디지털 대학원의 전공 중 하나로 차세대 태양전지용 신규 핵심 소재 및 제작기술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전공.
- ㉢ 기초학부 학생들의 1년간의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세로퍼즐 ㉡)의 4개의 코스 중 하나로 기초과학과 인문사회학 간의 융합연구를 진행하는 코스. 000 코스
- ㉣ 기초학부 3,4학년 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1년 단위의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규 교육과정 프로그램
- ㉤ 학부과정만을 전담하는 전담교수제를 통해 기초학부 교수님들이 교육, 연구지도, 진로 상담과 생활 멘토링까지 담당하는 제도 0000 00 교수제
- ㉥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손상혁 총장님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00 0000 시대를 맞아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다.
- ㉦ 디지털 대학원 6개의 전공 중 하나로, 신경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뇌 연구와 다양한 타분야와의 융복합 연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공. 0 • 0000 전공

작성자_서보인 대사

D LIGHT

The Second



“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디지스트를 홍보하겠습니다! 딜라이트 파이팅!

The Third



“ 2기 선배님들을 잘 벤치마킹 해
앞으로 홍보대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디지스트의 주인공은 18학번 여러분입니다!

총괄 : 김두희
담당자 : 김두희, 강민지, 김광균, 우진녕, 이준형